

한방차의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 조사연구

박호영¹⁾ · 진선영¹⁾ · 박소연¹⁾ · 이상재^{2)*}

¹⁾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²⁾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A Survey of the Medicinal Herbs Used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Hoyoung Park¹⁾, Sunyeong Jin¹⁾, Soyeon Park¹⁾ & Sangjae Lee^{2)*}

¹⁾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 Department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dicinal herbs, the ingredients of traditional Korean Tea, focusing on efficacy i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rough this study, for vitalizing traditional Korean Tea market, the researchers attempt to explain the superiority of traditional Korean Tea. And it will be used basis data on further traditional Korean Tea.

Methods : We conducted a research targeting traditional Korean Tea in domestic market from June through December 2014, and finally 205 kinds of T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Results : 48 kinds of medicinal herbs were used alone as ingredients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containing just one medicinal Herb, and 87 kinds of medicinal herbs were used as ingredients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containing more than two kinds medicinal Herbs.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medicinal Herbs by part for use, roots and rhizome is most used. In the classification of efficacy of medicinal herbs, tonifying and replenishing medicinal herbs are most popular as ingredients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Conclusions : Medicinal herb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Tea consumers concern about not only the efficacy but also the taste, scent and color. Therefore, further study about these things would be required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Tea.

Key words : traditional tea, medicinal herb, efficacy, Korean medicine

I. 서론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속에

서 약초를 활용하는 전통은 한국 한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른바 민중의학 혹은 생활의학으로서의 한의학 모습이다. 18세기 이후 의약지식의 간략화를 통해 약초에 대한 지식이 민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약초활용

• 접수 : 2016년 10월 13일 • 수정접수 : 2016년 11월 17일 • 채택 : 2016년 11월 30일

*교신저자 : 이상재, 626-77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전화 : 051-510-8472, 팩스 : 051-510-8437, 전자우편 : prehan@pusan.ac.kr

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며 그 맥이 끈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한의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¹⁾.

생활 속 약초 활용의 모습은 한약재의 식재료 사용에서부터 한방음료, 한방차, 전통주, 한방화장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식에서 나물의 재료로 다양한 약초의 순이나 뿌리가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음식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삼계탕에도 인삼, 황기, 대추, 해동피 등의 한약재가 사용된다. 수정과나 제호탕 같은 한약재를 재료로 한 음료가 사랑받고 있고, 전통주에는 의례히 지역 특산약초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방소재를 활용한 한방화장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약초활용의 문화와 연관이 깊다. 보통 茶라고 하면 차나무(CamelliasinensisL.)의 잎으로 만든 차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차, 오미자차, 모과차, 인삼차, 쌍화차 등과 같이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것을 약차, 전통차, 한방차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전통은 조선후기 약초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 약령시의 활성화로 민간에서 약초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한약처방 가운데 약재 가짓수가 적어 단조롭게 달여 마실 수 있는 것을 차라고 부르면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²⁾.

실제로 조선후기 『醫彙』와 같은 한의서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많은 종류의 차 이름이 등장한다. 대부분 질병 치료에 약 처방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되거나 질병예방,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³⁾. 약으로 사용되던 약차가 기호식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맛이나 향이 좋은 차들이 다방 메뉴가 되면서부터이다. 근래에는 『식품공전』⁴⁾에서 조차차를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가공하여 물에 침출해서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정도로 한방차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카페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방차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방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한방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한방차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는데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연구⁵⁾⁶⁾에서부터 마케팅방법 및 대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⁷⁻¹⁰⁾, 한방차 재료의 생리활성 효과에 대해 실험연구¹¹⁻¹³⁾ 등이었다. 옛

문헌에서 음청류, 약차의 종류를 고찰한 논문도 여러 편¹⁴⁾¹⁵⁾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용되고 있는 한방차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품화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한방차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하고 이들 한약재의 본초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방차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새로운 한방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대상 및 방법

1. 조사방법

조사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다. 한방차 제품에 사용된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과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도구로 활용하였다. '한방차', '전통차', 'korean traditional tea'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시중 17곳의 제조업체를 찾아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한방차 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차 포장 라벨, 차 제조업체의 온라인 문의를 통해 보완하였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한약재의 수에 따라 단방차(한 가지 한약재로 만든 차)와 복방차(두 가지 이상의 한약재로 만든 차)로 분류한 후 각각에 사용된 한약재의 빈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

가장 일반적인 차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침출차 제품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침출차라고 하지만 단순히 한약재들을 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백화차, 백초차와 같이 원료 한약재의 구성이 불명확한 제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서양 허브로만 구성된 제품은 제외하였고 한약재와 허브를 함께 사용한 경우는 한약재만 분석하였다. 또한 녹차만으로 구성된 단방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녹차와 한약재를 함께 사용한 복방차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17개사에서 출시된 205개 제품이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목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Tea by company

제조사	한방차 이름
옴니허브(27)	습차, 조차, 열차, 한차, 여주차, 춘추호차, 봄가을의차, 자소서성초그리고차, 맘에든다, 수험생아침차, 수험생저녁차, 홍삼굴피차, 제주유기농굴피차, 가비온차, 옥수수수염차, 메밀을품은굴피차, 그날의차, 우영차, 박하차, 굴피차, 모과차, 당귀차, 자소엽차, 감잎차, 뽕잎차, 오미자차, 계피차
쌍계제다(27)	살구홍차, 우영차, 연근차, 생강차, 돼지감자차, 도라지차, 국화차, 고뽕차, 홍삼굴피차, 헛개나무차, 타타리메밀차, 현미작설, 옥수수수염차, 오미자차, 연꽃차, 쑥향기차, 수국차, 감잎차, 뽕잎차, 보리순차, 민들레차, 결명자차, 겨우살이차, 가을송이차, 해우소차, 백하수오차, 백세누리겨우살이차
자연애(6)	행복한차, 상쾌한차, 든든한차, 푹푹한차, 가벼운차, 기운센차
차랑(20)	목에는늘, 여인에게, 숲속의바람, 오월의햇살, 구수한이야기, 운기&天, 미인&麗, 생기&活, 청안&守, 라인&備, 경쾌한차, 유쾌한차, 청쾌한차, 통쾌한차, 도라지차, 우영차, 감잎차, 굴피차, 타타리메밀차, 구름뽕아기보리차
나무늘보이야기(19)	야생감잎차, 야생뽕잎차, 구지뽕차, 당귀차, 민들레차, 자소엽차, 유기농굴피차, 야생쑥차, 목련차, 진달래차, 유기농국화차, 구절초꽃차, 도화차, 아카시아꽃차, 벚꽃차, 칡꽃차, 살구꽃차, 과꽃차, 짙레꽃차
전통애(14)	돌외잎보디가드차, 걱정제로차, 맵시라인차, 깨끗한차, 한잔후속편한차, 매일밤꿈나라차, 활력충전 에너지차, 헬로스마트차, 발효감초홍삼차, 발효감초티톡스차, 펜넬티, 굴피감차, 계피온차, 표고버섯차
백장생(13)	당귀차, 연잎차, 우영차, 타타리메밀녹차, 백세구기차, 삼백초차, 감잎차, 두충차, 메밀차, 국화차, 박하차, 뽕잎차, 굴피차
수네츄얼(1)	건강한동충하초차
명인당 오감명차(12)	포공영차, 송담차, 감덕차, 하갈차, 청백차, 옥음차, 상강차, 철각차, 맥상차, 애온차, 안중차, 명목차
이도(8)	반하다, 달콤하다, 숨쉬다, 잘잔다, 줄이다, 비우다, 후련하다, 내리다
티나린(5)	모은차, 연류차, 청안차, 천공차, 소생차
화개제다(20)	우영차, 쑥차, 도라지차, 무가당천지이슬차, 메밀차, 국화차, 옥로오미자차, 등글레차, 옥로겨우살이차, 인동초차, 민들레차, 옥로굴피차, 헛개잎차, 뽕잎차, 모과차, 산더덕차, 옥로구기자차, 감잎차, 산침차, 매화차
연우제다(12)	국화차, 매화꽃차, 쑥차, 연잎차, 감잎차, 도라지차, 보리순차, 민들레차, 뽕잎차, 우영차, 겨우살이차, 구지뽕잎차
한국제다(6)	유기국화차, 뽕잎차, 감잎차, 결명차, 연근차, 두충차
산그리메(9)	국화차, 감잎차, 뽕잎차, 구지뽕잎차, 진달래차, 도라지차, 우영차, 영경귀차, 헛개잎차
한국인삼공사 예본(5)	예본 구수한 ti:, 예본 부드러운 ti:, 예본 향긋한 ti:, 예본 깔끔한 ti:, 예본 청아한 ti:
HB한방자연식품(1)	브레인티

III. 연구결과

2. 한방차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 빈도

1. 한방차에 사용된 한약재의 가짓수

한방차의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 수는 적게는 1가지에서 가장 많게는 10가지의 한약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Table 2). 205개의 제품 중 1가지 한약재만을 원료로 한 단방차는 114개였다. 2가지 이상을 원료로 한 복방차는 3가지를 원료로 하는 경우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5가지, 4가지, 2가지 순이었다. 대부분의 복방차는 2-5가지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었고 6가지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1) 단방차

조사대상 한방차 중에서 단방차에 사용된 한약재는 총 48가지였고 감잎, 뽕잎, 굴피, 우영, 국화 길경 순으로 많았다(Table 3).

2) 복방차

복방차에 사용된 한약재는 총 87가지였고 감초, 굴피, 녹차엽, 대추, 계피, 모과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Tea by Added Numbers of Herbs

한약재 수	차 이름
6가지 이상	든든한차(10), 생강차(8), 기운센차(8), 운기&天(7), 브레인티(7), 가을의차(6), 수험생저녁차(6), 한잔후속편한차(6), 천공차(6)
5가지	춘추호차, 고뿔차, 해우소차, 백하수오차, 백세누리겨우살이차, 목에는늘, 여인에게, 구수한이야기, 미인&麗, 생기&活, 청안&守, 매일밤꿈나라차, 활력충전에너지차, 발효감초티톡스차, 안중차, 달콤하다, 내리다, 모온차, 연류차, 청안차, 소생차
4가지	그날의차, 홍삼굴피차, 숲속의바람, 오일의햇살, 헬로스마트차, 백세구기차, 포공영차, 옥음차, 철각차, 맥상차, 애운차, 반하다, 비우다, 후련하다, 예본구수한ti:, 예본부드러운ti:, 예본향긋한ti:, 예본깔끔한ti:, 예본청아한ti:
3가지	습차, 조차, 열차, 한차, 자소서성초그리고차, 맘에든다, 수험생아침차, 가비운차, 옥수수수염차, 옥수수수염차, 연꽃차, 상쾌한차, 똑똑한차, 라인&備, 유쾌한차, 청쾌한차, 통쾌한차, 구름뽕아기보리차, 돌외잎보디가드차, 맵시라인차, 깨끗한차, 발효감초홍삼차, 송담차, 감덕차, 하갈차, 청백차, 삼강차, 명목차, 유기국화차
2가지	홍삼굴피차, 메밀을품은굴피차, 살구홍차, 현미자실, 행복한차, 가벼운차, 경쾌한차, 걱정제로차, 타타리메밀녹차, 삼백초차, 습수다, 잘잔다, 줄이다
1가지	여주차, 제주유기농굴피차, 우영차, 박하차, 굴피차, 모과차, 당귀차, 자소엽차, 감잎차, 뽕잎차, 오미자차, 계피차, 우영차, 연근차, 돼지갑자차, 도라지차, 국화차, 헛개나무차, 타타리메밀차, 오미자차, 썩향기차, 수국차, 감잎차, 뽕잎차, 보리순차, 민들레차, 결명자차, 겨우살이차, 가을송이차, 도라지차, 우영차, 감잎차, 굴피차, 타타리메밀차, 야생감잎차, 야생뽕잎차, 꾸지뽕차, 당귀차, 민들레차, 자소엽차, 유기농굴피차, 야생썩차, 목련차, 진달래차, 유기농국화차, 구절초꽃차, 도화차, 아카시아꽃차, 벚꽃차, 칩꽃차, 살구꽃차, 괴꽃차, 짙레꽃차, 펜빌티, 굴피감자, 계피온차, 표고버섯차, 당귀차, 하엽차, 우영차, 감잎차, 두충차, 메밀차, 국화차, 박하차, 뽕잎차, 굴피차, 건강한동충하초차, 우영차, 썩차, 도라지차, 무가당 천지이슬차, 메밀차, 국화차, 옥로오미자차, 동굴레차, 옥로겨우살이차, 인동초차, 민들레차, 옥로굴피차, 헛개잎차, 뽕잎차, 모과차, 산더덕차, 옥로구기차차, 감잎차, 산철차, 매화차, 국화차, 매화꽃차, 썩차, 하엽차, 감잎차, 도라지차, 보리순차, 민들레차, 뽕잎차, 우영차, 겨우살이차, 구지뽕잎차, 뽕잎차, 감잎차, 결명차, 연근차, 두충차, 국화차, 감잎차, 뽕잎차, 구지뽕잎차, 진달래차, 도라지차, 우영차, 영경귀차, 헛개잎차

Table 3. Frequency Use in Traditional Korean Tea contained just one medicinal Herb

빈도수	한약재 이름
9	감잎
8	뽕잎
7	굴피, 우영
6	국화
5	도라지
4	메밀, 썩, 포공영
3	구지뽕잎, 당귀, 상기생, 오미자, 연잎
2	결명자, 계피, 매화, 모과, 박하, 보리, 수국, 자소엽, 진달래, 칩, 헛개잎
1	과꽃, 구기차, 구절초꽃, 더덕, 도화, 동충하초, 돼지갑자, 두충, 두충엽, 동굴레, 벚꽃, 살구꽃, 솔잎, 신이, 아카시아꽃, 영경귀, 여주열매, 연근, 인동초, 짙레꽃, 표고버섯, 헛개나무, 회향

Table 4. Frequency Use in Traditional Korean Tea contained more than two kinds medicinal Herbs

빈도수	한약재이름
11번 이상	감초(26), 굴피(26), 녹차엽(19), 대추(15), 계피(14), 모과(11)
10	당귀, 솔잎, 의이인
9	결명자, 생강
8	박하, 연잎, 황기
7	동굴레, 현미
6	구기차, 도라지, 맥문동, 서목태, 천궁
5	감잎, 국화, 뽕잎, 수국, 자소엽
4	금은화, 메밀, 보리, 작약, 죽엽, 홍삼
3	검정콩, 삼백초, 옥수수, 칩
2	강황, 건강, 나복, 녹두, 백출, 복령, 산사열매, 상지, 석창포, 어성초, 옥미수, 인삼, 참마, 포공영, 하수오, 헛개나무, 형개, 황금, 회향
1	개똥썩, 광향, 냉이, 단삼, 당아육, 돌배, 돌외잎, 두충엽, 매화, 밀, 백하수오, 산수유, 산조인, 상기생, 상향버섯, 썩, 연근, 연꽃, 연자육, 오가피, 오미자, 우슬, 우영, 원지, 은행잎, 익모초, 지각, 지구자, 지황, 창이차, 치자, 홍차엽

(Table 4).

3) 한방차

조사대상 한방차 205개 전체를 분석한 결과 총 106가지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꿀피가 33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감초, 녹차엽, 계피, 대추, 감잎, 당귀, 모과, 뽕잎, 결명자, 국화, 도라지, 솔잎, 연잎 순이었다(Table 5).

3. 한방차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의 특성
- 사용부위

한방차 원료로는 한약재의 잎이나 꽃은 물론 뿌리, 과실 등 다양한 부위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뿌리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잎, 종자, 꽃, 열매(과실), 전초 및 지상부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4. 한방차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의 특성
- 본초학적 효능

한방차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의 본초학적 효능별 분류에서는 보익약에 속하는 한약재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해표약, 청열약, 활혈거어약 순이었다(Table 7).

IV. 고 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를 차의 형태로도 사용해 왔다. 조선후기 왕실에서의 다양한 약차 사용이 알려져 있고,²⁾ 약재를 다 구비하기 힘들어 한약 처방을 사용하기 힘들었던 일반 서민들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단순하게 끓여 차처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³⁾ 이러한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방차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방차 생산량도 늘고, 종류도 다

Table 5. Whole Frequency of medicinal Herbs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빈도수	한약재이름
16번 이상	꿀피(33), 감초(26), 녹차엽(19), 계피(16)
11~15번	대추(15), 감잎(14), 당귀(13), 모과(13), 뽕잎(13), 결명자(11), 국화(11), 도라지(11), 솔잎(11), 연잎(11)
6~10번	박하(10), 의이인(10), 생강(9), 동굴레(8), 메밀(8), 우영(8), 황기(8), 구기자(7), 수국(7), 자소엽(7), 현미(7), 맥문동(6), 보리(6), 서목태(6), 천궁(6), 포공영(6)
2~5번	쑥(5), 칩(5), 금은화(4), 상기생(4), 오미자(4), 작약(4), 죽엽(4), 홍삼(4), 검정콩(3), 구지뽕잎(3), 매화(3), 삼백초(3), 옥수수(3), 헛개나무(3), 회향(3), 강황(2), 건강(2), 나복(2), 녹두(2), 두충엽(2), 백출(2), 복령(2), 산사열매(2), 상지(2), 석창포(2), 어성초(2), 연근(2), 옥미수(2), 인삼(2), 진달래(2), 참마(2), 하수오(2), 헛개잎(2), 형개(2), 황금(2)
1번	개똥쑥, 과꽃, 광향, 구절초꽃, 냉이, 단삼, 당아욱, 더덕, 도화, 돌배, 들외잎, 동충하초, 돼지감자, 두충, 밀, 백하수오, 벚꽃, 산수유, 산조인, 살구꽃, 상황버섯, 신이, 아카시아꽃, 영경귀, 여주열매, 연꽃, 연자육, 오가피, 우슬, 원지, 은행잎, 익모초, 인동초, 지각, 지구자, 지황, 짚레꽃, 창이자, 치자, 표고버섯, 홍차엽

Table 6. Classification of the medicinal Herbs by part for use

사용부위	한약재 이름
뿌리	감초, 강황, 건강, 도라지, 단삼, 당귀, 더덕, 돼지감자, 동굴레, 맥문동, 백출, 백하수오, 생강, 석창포, 영경귀, 연근, 오가피, 우슬, 우영, 원지, 인삼, 작약, 지황, 참마, 천궁, 칩, 하수오, 홍삼, 황금, 황기
잎	감잎, 개똥쑥, 구지뽕잎, 녹차엽, 당아욱, 들외잎, 두충엽, 박하, 뽕잎, 솔잎, 쑥, 은행잎, 자소엽, 죽엽, 연잎, 헛개잎, 홍차엽
꽃	과꽃, 구절초꽃, 국화, 금은화, 도화, 매화, 벚꽃, 살구꽃, 수국, 신이, 아카시아꽃, 연꽃, 진달래, 짚레꽃
종자	검정콩, 결명자, 나복, 녹두, 메밀, 밀, 보리, 산조인, 서목태, 연자육, 오미자, 옥수수, 의이인, 지구자, 현미
열매(과실)	구기자, 꿀피, 대추, 돌배, 모과, 산사열매, 산수유, 여주열매, 지각, 창이자, 치자, 회향
전초 및 지상부	광향, 냉이, 삼백초, 상기생, 어성초, 익모초, 인동초, 포공영, 형개
기타	계피, 동충하초, 두충, 복령, 상지, 상황버섯, 옥미수, 표고버섯, 헛개나무

Table 7. Classification of the medicinal Herbs in the Traditional Korean Tea by Efficacy

효능	한약재명	
補益藥	補氣藥	감초, 대추, 황기, 홍삼, 백출, 인삼, 참마
	補血藥	당귀, 하수오, 백하수오
	補陰藥	동글레, 구기자, 맥문동, 더덕
	補陽藥	두충엽, 동충하초, 두충
解表藥	계피, 국화, 박하, 뽕잎, 생강, 우영, 자소엽, 형개, 신이, 창이자	
清熱藥	포공영, 금은화, 죽엽, 어성초, 황금, 인동초, 지황, 치자	
祛風濕藥	모과, 상기생, 상지, 오가피	
芳香化濕藥	곽향	
利水滲濕藥	의이인, 삼백초, 복령, 옥미수	
溫裏藥	회향, 건강	
理氣藥	귤피, 지각	
消食藥	나복, 산사열매	
止血藥	쑥	
活血祛瘀藥	천궁, 강황, 단삼, 우슬, 익모초	
化痰止咳平喘藥	도라지	
安神藥	산조인, 원지	
平肝藥	결명자	
開竅藥	석창포	
收澀藥	오미자, 산수유, 연자육	
기타 미분류 41	녹차엽, 감잎, 솔잎, 연잎, 메밀, 수국, 현미, 보리, 서목태, 검정콩, 구지뽕잎, 매화, 옥수수, 헛개나무, 녹두, 연근, 진달래, 헛개잎, 개똥쑥, 과꽃, 구절초꽃, 냉이, 당아욱, 도화, 들배, 들외잎, 돼지감자, 밀, 벚꽃, 살구꽃, 상황버섯, 아카시아꽃, 영경귀, 여주열매, 연꽃, 은행잎, 지구자, 짚레꽃, 표고버섯, 홍차엽	

양해지기 시작했다. 한방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생겨나고, 한방차 카페도 생겨났다.¹⁶⁾ 2007년에 발생한 녹차 농약 검출사건도 한방차에 대한 관심을 높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¹⁷⁾ 이 사건으로 녹차 소비는 크게 위축되었고 녹차 제조업체들은 대용차로써 한방차 제품을 시중에 출시하기 시작했다. 마침 대중매체에서도 건강소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¹⁸⁾, 건강정보를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소재로 차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중에 제품화된 한방차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한방차의 재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종류도 다양해 졌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약재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침출차 제품을 대상으로 각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하고 이들 한약재의 본초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에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협동조합 등의 생산 제품은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한방차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조사대상 한방차 중 단방차는 114종, 복방차는 91종으로 단방차의 비중이 높았으나 단방차 위주에서 복방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방차 시장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방차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는 3가지, 5가지, 4가지, 2가지 순으로 5가지 이하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원료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맛이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방차 제품으로는 감잎차, 뽕잎차, 귤피차, 우영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통 대중적으로 대표차라 할 만한 보리차, 동글레차, 유자차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번 연구 대상을 침출차로 한정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라 생각된다. 보리차, 동글레차의 경우 대기업에서 식수대용차로 대량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모과차, 유자차는 청의 형태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방차에서 가장 다 빈도로 사용된 한약재는 감잎이

었고 그 다음으로는 뽕잎이었다. 일반적으로 잎이나 꽃은 추출이 용이하여 차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상품화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통 대표적인 잎차라고 하면 감잎, 뽕잎, 연잎을 들 수 있는데 연잎은 단방차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잎 특유의 독특한 향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네이버 트렌드조사에 따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감잎차의 비타민C 효능을 강조한 제품 마케팅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비타민 음료의 인기와 더불어 그 수요도 늘어난 것이라 짐작된다. 뽕잎은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 綠雲散이라 하여 단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한약재이다. 우영차는 얼마전 한 TV프로그램에서 유명연예인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소개되면서 갑작스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우영은 식재료로서도 자주 쓰일 뿐만 아니라 구하기 쉽고 차로 볶았을 때의 구수한 맛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복방차는 ‘목에는 늘’, ‘습차’, ‘가벼운 차’와 같은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복방차의 원료로는 굴피와 감초가 각각 26회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예로부터 굴피는 겨울철 감기에 자주 차로 끓여 마셨던 재료다. 이러한 굴피가 2004년 한 회사에서 굴피 로스팅 기술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굴피차를 제품화하였다. 그 뒤로 여러 후발업체에서도 다양한 굴피차 제품들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강하지 않은 향이나 맛으로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는 특징 때문에 복방차의 재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듯하다. 감초는 단방차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고, 복방차의 재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감초는 調和諸藥이라 해서 여러 한약재들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유의 단맛도 가지고 있어 복방차의 재료로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굴피, 감초에 이어 녹차엽도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녹차엽을 베이스로 여러 한약재를 혼합하는 티블랜딩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었다. 녹차를 좀 더 다양하게 마시기 위한 시도와 함께 홍차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볼 수 있다. 티블랜딩 제품은 단방차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좀 더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계피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계피는 사과계피차, 오미자계피차, 꿀 계피차처럼 달고 상큼한 맛을 가진 재료와의 블랜딩으로 이루어진 상품이 많았다. 계피는 예로부터 우리민족이 즐겨 마셔온 수정

과의 재료로도 친숙한 한약재이다.

한방차에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부위로 뿌리 및 뿌리줄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약재 중에 뿌리 및 뿌리줄기 류가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뿌리 및 뿌리줄기는 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전에는 차 재료로서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엔 buffing, roasting 제조법의 발달로 인해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차라고 하면 잎과 꽃 부위를 많이 사용한다. 잎은 잘 우리나라고 꽃은 향기가 있어 상품으로써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한방차에 한약재의 다양한 부위가 고루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한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재료를 차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방차에 사용된 한약재의 효능별 분류를 분석해보면 보익약, 해표약, 청열약, 활혈거어약 순이었다. 감초, 당귀, 둥굴레, 두충엽 등 보익약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의 유익함을 기대하는 기능성 음료로서의 역할 때문일 것이다. 해표약이나 활혈거어약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기에 속하는 약재들 중에辛味를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특한 향을 가진 한약재들이 차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방차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관심을 끌기 쉬운 효능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맛이나 향에 있어서 차로써의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약재를 좋은 차로 만드는 전처리 기술과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맛, 향, 빛깔 등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시중에서 침출차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한방차 205개 제품에 사용된 한약재 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05개의 제품 중 1가지 한약재만을 원료로 한 단방차는 114개였고, 2가지 이상을 원료로 한 복방차는 91종이었다. 복방차는 3가지 원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5가지, 4가지, 2가지 순으로 원료가 사용되었다.

2. 205개 제품에 106가지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꿀피가 33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감초, 녹차엽, 계피, 대추, 감잎, 당귀, 모과, 뽕잎, 결명자, 국화, 도라지, 솔잎, 연잎 순이었다. 단방차에 사용된 한약재는 감잎, 뽕잎, 꿀피, 우엉, 국화 길경 순이었고, 복방차에 사용된 한약재는 감초, 꿀피, 녹차엽, 대추, 계피, 모과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3. 원료 한약재의 부위는 뿌리 및 뿌리줄기가 가장 많았고, 본초서에 기술된 효능별로 분류한 결과 補益藥類에 속한 한약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김대원. 18세기 民間醫療의 成長. 한국사론. 1998; 39:187-238.
2. 이상재, 정지훈.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한국의 차문화.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2):17-28
3. 조선시대 藥茶 연구: 醫學書籍과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김종오.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0.
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 2011.
5. 오성천. 가공조건에 따른 황기, 오미자, 맥문동 및 길경을 첨가한 한방차의 품질 특성. 한국유화학회지. 2014;31(3):534-540.
6. 장재선, 최미용, 오성천. 당귀, 작약, 천궁, 삼백초, 인진쑥 및 산조인을 첨가한 한방차의 팽화 온도별 고형분 용출율과 Benzo[α]pyrene의 변화. 한국유화학회지. 2014;31(2):305-312.
7. 손해식, 임정남. 전통차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001;8:21-38.
8. 송지성, 신희영. 민속차 고유브랜드 창출을 위한 한국전통차 시장 및 스타벅스 사례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2;8(2):253-263.
9. 김경희, 박성선. 전통차 전문점 방문객의 차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한국차학회지. 2008; 14(3):51-62.
10. 허영선, 함성필. 전통차 전문점 방문고객의 선택속성, 고객만족, 추천의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2013;9(3):45-60.
11. 이덕자, 조정순, 박진영, 박성혜. 기체혈어형 과제 중 및 비만을 위한 약선차의 약선식료학적 접근 및 식품영양학적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12;25(3):513-520.
12. 김석중, 김동철, 이진상, 김미려. 한방차의 여성 생리통 완화에 대한 임상체험 평가. 동서의학. 2012; 37(1):29-41.
13. 김수경, 이정은, 윤미경, 고희정. 한방차가 시설노인의 생리적 기능과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4;15(3):1448-1457.
14. 오승희. 韓國飲清類에 關한 研究 -第四報 林園十六志를 中心으로 한 韓國 飲清類에 關하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978;7(2):13-19.
15. 오방색으로 분류한 꽃차와 약차의 종류 및 효능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명옥. 조선대학교(대체의학과). 2016.
16. 하은옥, 강문숙, 이명자, 박성선. 茶연구동향 분석. 한국차학회지. 2010;16(3):111-118.
17. 정병춘, 문윤희, 송연상, 한선경, 방진기. 역사를 통해서 본 한국 차 산업 발전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한국차학회지. 2007;13(3):159-176.
18. 문수정, 정순희. 웰빙 茶음료 구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8;26(6):71-82.